



OIII-7

잇솔질이 도재 색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이임기*, 박찬운, 송광엽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1. 연구목적

고정성 보철물에서의 환자의 심미적 요구가 더욱 높아짐에 따라, 도재 stain이 빈번히 요구되어지고 있다.

그로 인해 다색 축성법에 비교된 staining에서의 색의 안정도(color stability)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staining의 색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요소 중, 기공사에 의한 Glazing시와 환자의 사용도중에 일어 날 수 있는 요인 중 큰 영향을 미치는 칫솔질 마모에 의한 색의 변화 정도를 비교하고자 한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1) Glazing 전후의 색의 변화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Vintage Incical porcelain no.59 OPAL(Shofu Inc, Japan)으로 시편을 만들고, 이 위에 세가지 색(blue, light brown, orange)의 Porcelain stain(Shofu Inc, Japan)을 적용, 소성 후와 Glazing 후의 색을 각각 측정하여, 색의 차이를 Spectrophotometer(Spectron Tech, Korea)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2) 잇솔질 마모시의 색의 변화를 알아 보기 위해, staining 시의 두 가지 조건으로 실험하였다. 첫째 staining Technique에 있어서 stainer, glazing powder & glazing liquid를 모두 섞어 적용 후 한번에 의해 소성하는 것과, stainer, glazing liquid를 적용 후 일차 소성하고 glazing powder 와 glazing liquid를 적용하여 이차 소성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stainer의 색은 blue, light brown & orange

색을 이용하여서 비교 하였다. 이 두 조건을 결합하여 총 6종류의 시편을 제작하였다. 마모시험기(Kwangdeok FA, Korea)를 이용하여 약 4년과 8년의 brushing 효과를 재현하기 위해 4만회와 8만회의 마모시험을 시행하고 시행 전, 4만회, 그리고 8만회 마모시험 후의 색을 측정하고 각각을 SEM을 찍어 표면을 관찰하였다.

3. 결과

- Glazing 전,후의 색의 변화는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을 정도로 크진 않았으나 orange color에 경우는 Blue 와 light brown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더 많이 변하였다.
- 잇솔질에 의한 staining color의 변화는 두 번의 소성에 의한 stain 과 glazing을 시행하는 것이 한번에 의해 시행하는 것에 비해 색의 변화가 적었다.
- stainer의 색에 따른 차이는, 채도가 높은 orange color가 blue color에 비해 잇솔질 마모에 의한 색 변화에 민감하였다.
- 8만회 마모 후의 색의 변화는, stain과 glazing을 같이 적용하는 경우는 모든 stainer에서, 두 번에 걸쳐 소성하는 경우는 orange-stainer에서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을 정도의 색의 변화를 보였다.